

자동차 Analyst 신윤철 yoonchul.shin@kiwoom.com

현대모비스(012330)

외국인 지분율 43% 돌파, 2021년 1월 이후 첫 기록

◎ 6월 24일 종가 기준 외국인 지분율 43.01% 기록했으며 트렌드 지속 기대

- 2022년 6월 말에 기록한 33.9%를 기점으로 외국인 지분율 턴어라운드, 지난 3년 동안 +9%p 이상 확대됨
- 이처럼 현대모비스 외국인 지분율이 크게 확대된 유사 사례로는 2009년~2011년 차화정 당시의 34% → 47% 랠리가 대표적. 올해 자동차 섹터의 비우호적 업황 전망으로 인해 조기 대선 이후 나타나고 있는 코스피 상승장에서 자동차 섹터는 여전히 소외되고 있음. 차화정 수준의 폭발적인 외국인 유입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섹터 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우상향 중
- 다만 외국인 주도의 주가 우상향 추세와는 달리 아직 국내기관은 완성차 업종의 감의 우려 속에서 현대모비스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않는 흐름 지속. 이에 따라 주도 섹터들의 랠리 속에서 현대모비스의 최근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하는 장세

◎ 결국 트리거는 국내 기관이 현대모비스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 일례로 국민연금공단의 현대모비스 지분 변동 공시는 2023년 1월 30일이 마지막. 2020년 8월 31일 11.99%에 달했던 국민연금공단의 현대모비스 지분율은 2023년 1월 30일 8.50%로 축소된 이후 2년 이상 변동 없음
- 현대모비스에 대한 ETF 재투자금액 규모 역시 시가총액 대비 2% 미만으로 비교적 낮은 편. 즉 글로벌 ETF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반면 신규로 설정되는 ETF에 현대모비스가 유의미하게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며 이는 해결해야 할 과제. 참고로 당사가 조사한 코스피 시가총액 20위 이내 보통주에 대한 국내외 ETF 재투자금액 규모의 평균치는 현 시가총액 대비 2.48%
- 2025년 CEO Investor Day를 개최(2025년 8월 27일) 예정이며 매출액, 어닝보다는 최근 정부 기조에 발맞춰 P/B re-rating에 초점을 둔 기업가치 제고안을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공유하는 행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

현대모비스 외국인 지분율 증감 추이: 수급 강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유사한 패턴의 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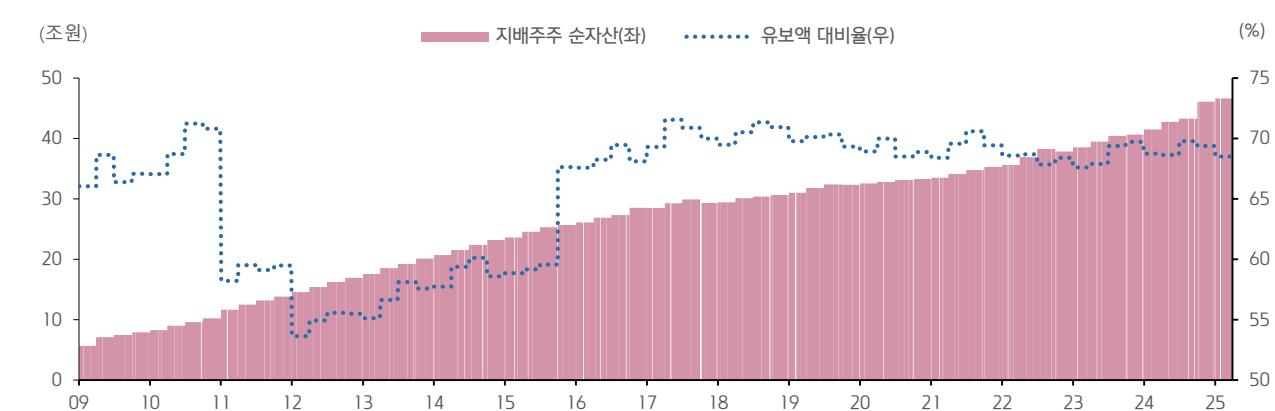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키움증권 리서치

현대모비스 P/B 추이: 역사적 최하단 수준에서 장기 횡보 중, 이에 대한 제고안 2025 CID에서 제시될 필요



현대모비스 지배주주 순자산 증가 추이 및 높은 유보 성향:

결국 2009년 대비 약 9배 성장한 순자산의 효율화 관련 계획 구체화 될 필요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바뀔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06월 25일 현재 상기 언급된 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